

### 공동체 소식

#### ▣ 위령성월

-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돌아가신 분들(부모, 친지, 은인)을 위해 미사 봉헌하시고 기도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 ▣ 평일미사 변경안내

- 목요일 오전 10시 미사가 없겠습니다.  
- 화요일, 수요일 저녁미사만 있습니다.

#### ▣ 구역반장모임

- 10일(일) 오후 1시 나자렛관

#### ▣ 교무금 안내

매월 교무금은 의무입니다.  
추가로 한 달분이상 교무금을 감사헌금으로 봉헌해 주십시오.  
추가로 감사헌금 봉헌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낙태 반대 서명운동

- 본당입구 게시판에 준비된 카드를 작성하여 총무에게 주시면 모아서 발송합니다.

#### ▣ 11월 2차헌금 안내

- **10일(일) 해외파견 한국선교사 및 북미주 한인사목 사제협의회 후원**  
- **17일(일)** Collection for the Archdiocese for the Military Services 군 사목을 위한 대교구 모금  
- **24일(일)** Catholic Campaign for Human Development (CCHD) 인간개발을 위한 가톨릭 캠페인

#### ▣ 구역모임

**2구역 15일(금) 저녁7시** 김태중 예레미아 가정  
**3구역 22일(금) 저녁7시30분** 문석찬 요셉 가정  
**4구역 2반 22일(금) 저녁7시** 김지섭 토마스aq. 가정  
**4구역 1반 23일(토) 오후4시30분** 박민 바실리오 가정

#### ▣ 전례 상식

- 주일에 타지역에 있는 경우 해당 지역 성당(한인/미국)에서 주일미사에 꼭 참례하시기 바랍니다.  
- 주일미사 참례를 못할 경우 고해성사를 하시고 영성체 하셔야 합니다.  
- 전례봉사자는 미사 참례전 고해성사로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주일헌금은 자선행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일주일간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다시 내가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 행위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 성당의 중심은 제대입니다. 또한 중앙통로는 전례때에 주로 사용합니다.

#### ▣ 전례 성가

	입 당	예 목	성 체	파 건
금 주	29	220	167	423
차 주	91	217	166	88

####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최은미(아네스)	김병철(베네딕도) 김경희(스콜라스티카)
차 주	김주연(세실리아)	김태중(예레미아) 김시연(엘리사벳)

#### ▣ 주일미사 복사

	향복사	시중복사
금 주	정예찬(미카엘)	김정빈(바오로) 김정원(안젤라)
차 주	고평원(프란치스코)	김정훈(로베르도) 김지안(요한)

#### ▣ 헌금 봉사자

금 주	홍순익(마르티노), 강승호(아오스딩)
차 주	김태중(예레미아), 김동술(요한)

#### ▣ 애찬 봉사자

금 주	1조: 조지연, 박정자, 김경돌, 정연숙, 이경남
차 주	2조: 최은미, 장보혜, 조경희

#### ▣ 미사 후 뒷정리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손을 하느님께서 기다리십니다.

- 매월 첫 주일 성당 지하 청소합니다.  
- 매 주일미사 후 간단하게 뒷정리 합니다.  
- 청소 담당은 편의상 구역을 나눴을뿐 많은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www.kckcatholic.org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korean1481@gmail.com  
회 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총 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유아세례: 전례부에 신청  
주일학교: 주일오전10시  
나자렛관



###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32주일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아버지 하느님께서 죽은 이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과 죽음에서 복된 희망을 품고, 우리 마음에 심어 주신 성자의 말씀을 착한 행실로 열매 맺는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 그림 묵상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야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 주었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는 것이다.”

루카 20, 37-38

제 1 독 서 : 마카베오기 하권 7,1-2,9-14

<온 세상의 임금님께서서는 우리를 일으키시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이요.>



◎ 주님, 저는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흡족하리이다.

- 주님, 의로운 사연을 들어 주소서. 제 부르짖음을 귀여겨들으소서. 거짓 없는 입술로 드리는, 제 기도예 귀 기울이소서. ◎
- 계명의 길 곳곳이 걷고, 당신의 길에서 제 발걸음 비틀거리지 않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이 응답해 주시니, 제가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귀 기울여 제 말씀 들어 주소서. ◎
- 당신 눈동자처럼 저를 보호하소서. 당신 날개 그늘에 저를 숨겨 주소서.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뵈옵고,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흡족하리이다.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2서 2,16—3,5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의 힘을 북돋우시어 온갖 좋은 일과 좋은 말을 하게 해 주십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죽은 이들의 만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하기를 비나이다. 아멘
-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20,27-38

<하느님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 생명의 말씀

## 영원한 행복의 나라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당에 나오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혹은 세상살이의 온갖 위험과 고통을 면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거나 갖가지 어려움과 아쉬움을 풀어주시거나 최소한 위로라도 받기를 원해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이 세상살이의 동반자로 모시며 인생을 보람 있고 뜻있게,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일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복음에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바로 뒤에 따라오는 구절(루카 20,41-47)에서는 당신 자신이 이 세상에서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하느님께 지극정성으로 헌신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시며 가르쳐주십니다. 사람들과 예수님의 바라는 것이 뭔가 서로 엇갈리는 듯합니다. 사람들의 눈길은 자꾸만 이 세상살이에 머무는데,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삶의 도달점인 내세, 영원한 참 삶이 열릴 하느님 나라에 관심을 두도록 이끄십니다.

나라, 신앙인의 삶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각오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2독서,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에서 드러난 초대교회 신자들의 믿음과 희망, 그리고 인내와 기도와 상호 간의 격려를 통해 짐작하게 되는 굳센 신앙생활 모습이 우리나라 초기 순교자들의 공동체 생활과 함께 겹쳐서 눈앞에 떠오르며,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제시해줍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이 길을 걸어갑시다.

박일 알렉산델 신부 | 반포1동성당 주임

###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과 영광으로 되살아난 의로운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새 세상에 속합니다. 이 세상은 불의, 고통, 스러져 없어짐, 부패, 죄의 세상이지만 미래의 새 세상, 하느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로서 부패하지 않는 정의롭고 믿음 가득한 진리의 세상입니다.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이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나라에, 하느님의 자녀들로서 들어선 사람들은 더 이상 결혼하지 않고 영적인 육신을 지니고 천사들처럼 되어, 하느님의 영광 속에서 영원히 하느님을 찬미하며 살아갈 것입니다(1코린 15,42 참조). 물론 하느님께서 마음에 드셔서 순전히 은총으로 선택한 의로운 이들 뿐 아니라, 불의한 자들도 모두가 부활할 것입니다(사도 24,15 참조). 하지만 오직 하느님 눈에 의로운 사람들의 부활만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종국에 얻게 될 이러한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을 마음에 담아 둘 때, 우리는 오늘 제1독서, 마카베오기 하권의 '한 어머니와 일곱 아들의 순교'의 충격적 장면을 혐오와 회피의 부담스러운 마음이 아

그분은 모든 것을 움켜쥐지 않으셨기에  
움켜쥐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에.

오히려  
그분은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에  
내어주지 않아도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으셨지만,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에.

모든 이들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으셨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에.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는 것이다.  
(루카 20,38)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 말씀의 이삭

## 노래하게 하소서!

"안녕하세요, 성가 가수 나혜선 요셉피나입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성가 가수임을 소개할 수 있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1999년 제1회 cpbc 창작생활성가제 본선 입상을 하면서 성가계에 입문하고 성가와 함께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함께 데뷔하여 지금까지 찬양만을 이어온 존경스러운 동료들도 있지만, 그들에 비해 저는 치열하게 이 안에 머물며 찬양만을 이어온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대기업 비서, 금속공예가, 방송 진행자, 공연기획자, 감정코칭 지도사, 퍼머넌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누군가의 딸, 아내, 엄마, 그리고 성가 가수.

지난 20년 동안 지나간, 또는 여전히 붙어있는 제 이름 앞의 수식어들이입니다. 그중에서도 '성가 가수'라는 단어 안에는 다른 일을 하면서도 성가를 놓지 못했던 제 신앙의 성장기가 고스란히 배어있습니다.

하루는 길에서 딸아이가 영똥하게도 "나는 성가 가수 나혜선 요셉피나의 딸이다!"라며 연이어 소리치길래 당황하여 아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울아, 엄마가 성가 가수인 게 좋아? 엄마는 그것 말고 다른 것도 하잖아." "응, 난 엄마가 성가 가수인 게 좋아, 그게 내 엄마여서 더 좋아! 하느님이 듣기 좋으니까 성가 가수 시켜준 거 아냐?" 아이의 말은 지난 삶을 떠올리고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공연 스케줄과 겹쳐 공예 공방 문을 일찍 닫아야 할 때의 답답함, 밤샘 녹음을 마치고 일을 나갈 때의 고단함,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노래하

는 것 같던 외로움,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두려움,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과 관계 속의 어려움 등 극복해야 할 상황들이 점차 늘어만 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경험치가 쌓여가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제겐 살아내야 했던 삶이었고, 그렇게라도 저를 불러 세워주시는 것을 감사라 여기며 받아들여 애썼습니다. 아이의 단순한 대답은 이런 삶 속에서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 이리저리 선을 긋고 재단하던 제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의 답변이 싫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노래하는 삶을, 제가 단순하게 원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네, 주님! 그 부르심에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기꺼이 응답하겠습니다. 노래할 때, 제 안에 오셔서 이를 기뻐하며 즐기시는 분이 다름 아닌 주님이십니다. 저의 찬양이 더 이상 당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 찬양을 멈춰야 함을 압니다. 저의 노래가, 저의 이름이, 저의 모습이 기억되기보다 오래전 누구의 찬양인지도 모르고 따라 부르며 제가 위로받고 회복했던 것처럼 저의 찬양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찬양이 당신을 닮아, 소멸해가는 누군가의 마음에 생명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오소서 성령님, 제 안에 머무소서. 그리하여 당신으로 인해 제가 노래하게 하소서. 아멘.

나혜선 요셉피나 | 성가 가수, 금속공예가

### 복음묵상



캘리그래퍼\_김발렌티노 발렌티노